

자판기와 키오스크



김 양 평 의

일본 이야기

일본은 자판기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거의 곳곳에서 자판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일반 주택가 골목은 물론이고 시골 마을의 버스 정류장, 심지어 등산로에서도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의 자판기는 단순한 판매 기계를 넘어 하나의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2011년 동 일본 대지진 당시 피해지역에서 자판기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다. 재난 상황에서 물과 음료를 즉각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에 사회 인프라로 불려도 충분한 것이다.

일본에서 자판기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의 부족에 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했으며,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는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해서 자판기는 사람의 빈자리를 메꾸는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등장한 'Hot & Cold' 기술로 인해 한대의 기계에서 따뜻한 음료와 차가운 음료가 동시에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자판기를 사계절 필수품으로 만들었다. 자판기는 편의점

이 성행하기 전부터 24시간 계절에 따라 차갑거나 따뜻한 음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

자판기의 판매 품목도 음료에 이어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었고 심지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자판기까지 진화했다. 일본에서도 술과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데, 이는 운전면허증을 통한 인증 시스템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한국에도 자판기가 1970년대부터 도입되었고 1990년대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판매하며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편의점의 등장으로 인해 자판기가 밀려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지하철역이나 공장, 병원 등의 일부 공간에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즉 일본에서는 여전히 자판기가 사회 인프라로 골목 어디서든 접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자판기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다.

일본의 식당에 설치된 자판기의 한 종류인 식권 발매기 역시 노동력을 대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점원이 직접 주문받고 계산해서 잔돈을 거슬러 주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많은 식당이 자판기를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자판기 때문에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 설치한 자판기는 현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도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구형 자판기를 고집하다 보니 해외에서 온 여행객뿐만 아니라 국내 고객도 불편을 호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식당에서는 오히려 자판기가 사라지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순식간에 수많은 식당에 설치되었다. 키오스크 역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지만 도입 배경이 단순한 인건비 절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코로나19 펜데믹을 기점으로 비대면 주문이 요구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가속화된 것이다. 한국의 키오스크는 신용카드를 비롯하여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결제 효율성이 높다. 하지만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오히려 장벽이 되어 효율성을 얻는 대신 잃은 것도 있다.

편리성과 경제성을 먼저 달성한 자판기의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일본의 모습이라면, 외부 변화를 순식간에 받아들여 빠르게 확산한 키오스크는 한국의 모습이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무신사에서 노래 부르며 사우나 할 날이 올까



김 지 수 첩

손 중 욱
(유통&라이프부)

기사 거리가 떨어진 유통부 기자에게 무신사는 고마운 기업이다. 상표권 검색 사이트에서 '무신사'를 입력해 본다. 무신사 스탠다드 스마트, 멤버스, 캠페인인, 펫, 플레이스, 테이블, 텔리, 드롭, 필드, 아웃도어, 케어, 컨시어지, PAW, 캠프, 클럽, 나우, 트레일, 스냅, 패스, 무신사우나, 무신사플라워, 무신사...

어떤 기자는 '무신사, 캠퍼용품 진출하나... 상표권 대거 등록'이라는 기사를 쓰고, 어떤 기자는 '무신사, 구독형 플랫폼으로 거듭나나... 무신사 패스 상표권 등록'이라는 기사를 낸다. 등록 배경을 물으면 돌아오는 답은 비슷하다. "선점 차원일 뿐, 구체

적 사업 계획은 없다"는 내용이다.

무신사가 펼치는 광폭 행보는 올해 예정된 기업공개(IPO)와 맞닿아 있다. 목표 기업 가치 10조원 이상을 달성하고자 패션을 넘어 뷰티, 리빙, 생활용품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을 꾀한다. 최근 명동과 성수 등 주요 변화가에 점포를 열며 단순 패션 플랫폼을 넘어 종합몰로 변신 중이기도 하다. 지금은 무의미해 보이는 상표권도 언젠가 현실이 되어 나타날지 모른다.

취급 품목이 늘자 경쟁사와 충돌도 잦아졌다. 최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빚은 쿠팡이 상대다. 한때 쿠팡은 OTT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신사 뽀새나다'는 대사로 무신사를 우회해 저격했다. 무신사가 쿠팡 임원을 대거 영입하자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질세라 최근 무신사는 '구만원 뽀뽀 구뽀 쿠폰'을 내세우며 맞불을 댔다. 쿠팡 색을 가진 쿠폰까지 누가 봐도 저격한 모습이다.

무신사에서 쿠팡의 과거가 겹쳐 보인다. 쿠팡은 '쿠폰이 광왕 타진다'라는 뜻을 가진 할인쿠폰 공동구매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다. (쿠팡 측은 부인하고 있다) 무신사 역시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란 커뮤니티로 시작했다. 지금처럼 다루는 품목이 많지 않았다.

쿠팡은 2020년 상장 전 몸값을 올리기 위해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등으로 사업군을 넓혔다. 이후 대만과 일본에 진출해 덩치를 키웠다. 무신사도 상장을 앞두고 상품군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 상하이 안푸루 편집숍 개점, 일본 법인 대표 선임 등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다. 또 닳은 점이 있다. 조만호 무신사 총괄대표는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논란 속에 두문불출하던 김범석 쿠팡 의장 모습이 겹치는 대목이다.

/handbell@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28일 (음 12월 1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분노가 치밀어도 차분하게 분을 참아야. 48년생 손뽕도 미주쳐야 소리가 난다. 60년생 요령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공부하라. 72년생 현재의 자산은 과거 삶의 부지런한 결과이다. 84년생 폭풍이오니 멀리 있는 길은 금물일 듯.



37년생 조상제사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49년생 젊음은 언제나 행복한 시기이다. 61년생 공부에 매진하여 갈고닦아라. 73년생 초대는 있으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85년생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술력은 무시하지 못함.



38년생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도 삶의 기준으로 볼 것. 50년생 능력이 부족하데 불평이 많은지? 62년생 지출비가 과다하지 않도록. 74년생 이득이 있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려라. 86년생 마음은 있으나 돈이 따라주지 않으니 하랄.



39년생 매사에 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51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미리 거절. 63년생 아직보다는 다니는 직장을 소중히. 75년생 멀리 있는 형제보다 이웃사촌이 반갑다. 87년생 비트코인과는 인연이 없으니 직장에 성실하도록.



40년생 상대는 교만해도 나는 진술하게 대할 것. 52년생 술을 좋아하는 것도 자제해야. 64년생 어디를 가나 스승은 있으니 겸손하라. 76년생 사람을 모아 놓고 말이 길어지면 눈총이다. 88년생 외출할 때 연락망인 핸드폰 챙겨가도록.



41년생 친구는 서로 보물과 같으니 이기심을 버려라. 53년생 외로움보다 힘든 것은 잊히는 것이라. 65년생 힘든 업무를 선택해 도와준다. 77년생 삼각관계 바람이 웬 말인가. 89년생 금 각 살이 있으니 지하철 다닐 때 미끄럼 주의.



42년생 분홍색이 행운을 주니 옷을 잘 챙겨보라. 54년생 존중하는 것이 오늘의 승패를 좌지우지. 66년생 쾌청한 날이니 집 안 청소를 분위기를 바꾸자. 78년생 멀리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도록. 90년생 마음이 상해도 가족끼리는 협조를.



43년생 묵었던 일이 순조롭게 해결. 55년생 시간이 없어 곤란하더라도 일은 마무리하라. 67년생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법. 79년생 집안 문제로 사돈끼리 다투기보다는 대화로 풀어가라. 91년생 화려한 옷을 입어보고 마음을 화사하게.



44년생 남의 부부 일에 간섭하다 도리어 화근. 56년생 직장에서 후배 동료들을 선동하지 마라. 68년생 눈에 띄려 하지 말고 말조심. 80년생 힘든 끝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격. 92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으니 음식 섭취에도 천천히.



45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지만 사람은 옛사람이. 57년생 지식을 유용하게 쓰니 좋은 일이 있다. 69년생 오전부터 활기차게 계획을. 81년생 조상님 덕으로 오늘이 있는 것이니 효는 기본이다. 93년생 조직의 화합을 해치는 부류를 경계해야.



46년생 상부상조하는 것도 사회생활의 일부. 58년생 모자란 듯이 약간 부족한 것이 이롭다. 70년생 작은 것을 양보하면 큰 것이 온다. 82년생 운이 좋으나 음주운전은 주의해야. 94년생 친구에게 돈 자랑을 말로만 떠벌리지 말고 베풀어라.



47년생 변화의 운이오니 서두르지 말라. 59년생 우기다가 손실이 커진다. 71년생 부적 절한 만남은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 만들지 않도록. 83년생 늦지 않았으니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95년생 삼계 팔란 관제구설이라 했으니 삼계 기도.

김상회의四季

남 탓



언제부턴가 남 탓하는 말이 많이 들린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제노나 조직을 탓하고, 성과가 나쁘면 뒷사람이나 아랫사람을 먼저 탓한다.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 빠르고 거칠게 책임을 전가한다. 자극적인 표현이 가득한 짧은 글 하나로 다른 누군가를 몰고 늘어진다. 남 탓은 어느새 개인을 넘어, 사회의 트렌드처럼 되어가고 있다. 물론 세상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불공정과 경제적 불안 그리고 예측 어려운 변화 속에서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남 탓으로 돌리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 남 탓을 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편할 수는 있지만, 해결책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남 탓은 본인에게도 큰 손해로 돌아온다.

남을 핑계로 대면서 자기 행동이나 결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볼 기회를 잃어버리므로 발전과 성장이 가로막힌다. 또한,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착각에 빠져서 현실을 제대로 보는 판단력이 떨어지게 된다. 매번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을 비난하면 함께 일하거나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낙인찍힌다.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불만을 터뜨리고 주변과 싸움을 벌이게 되므로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 결국, 남 탓하는 사람은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선택하는 꼴이다. 남 탓 문화가 변해가면 사회적으로도 불신과 갈등이 커진다. 너도나도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가 되면 싸움과 갈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남 탓 문화를 개선하는 열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기 책임을 인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4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4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8	1	2	9	6	1	9	7
6	9	8	1	8	7	1	9	8
2	7	9	1	9	8	8	1	6
1	1	2	9	8	9	8	6	9
9	8	9	8	6	2	7	1	1
8	6	7	9	1	1	2	8	9
9	2	8	6	1	7	1	9	8
7	1	6	9	2	8	9	8	1
1	9	8	1	8	9	6	7	2

8	1	9	8	7	9	2	6
7	2	6	9	1	8	1	9
9	9	8	1	6	2	7	1
1	9	9	7	1	8	8	6
2	8	7	6	9	9	1	8
6	8	1	2	8	1	9	7
9	7	8	2	1	6	9	1
8	1	9	8	9	6	2	7
1	6	2	1	7	9	8	9